

“3대로 이어진 나라사랑”... 전남광주 병역명문가 표창

병무청, 증서 수여식 개최... 올해 271가문 선정 제1전비 안보견학... “나라 희생·헌신 등 자부심”

“저희 가문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자긍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병역명문가 증서 수여식’을 열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 15가문을 표창했다.

병역명문가는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의미한다.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이들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23년째를 맞았다.

올해 광주·전남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271가문이 새롭게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

병역을 이행한 가족은 모두 1280명으로, 사업 시행 이후 누적 병역명문가는 897가문, 4453명으로 늘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육군 제2작전사령관 표창 1가문, 육군 제31보병사단장 표창 5가문, 광주지방보훈청장 표창 4가문,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표창 5가문 등 모두 15가문이 표창을 받았다.

특히 육군 제2작전사령관 표창을 받은 김재용 가문은 1대부터 3대까지 가족 11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병역명문가 증서 수여식’을 열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 15가문을 표창했다.

명이 모두 407개월 동안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 1대인 고(故) 김재용씨는 6·25전쟁에 참전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재용 용사의 아들 김현호씨는 “아버지의 나라사랑 정신을 가족 모두가 이어

이 됐다”고 말했다.

증서 수여식 이후에는 병역명문가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광주 광산구 일원에 위치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 안보 견학도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한반도 서남부 영공을 수호하고 있는 제1전투비행단의 주요 임무와 항공전력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격납고로 이동, 전투기(T-50)와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안보 현장을 직접 체험했다.

전종호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은 “대를 이어 나라사랑을 실천한 병역명문가를 예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자긍심을 갖고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aT “농산물 스마트 유통체계 확대”

유통성과 점검회의... 스마트 APC 60개소 달성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최근 나주 본사에서 ‘2026년 상반기 유통본부 업무추진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2026. 6. 29. (목) 오후 4시 | 장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총회회의실 |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이번 회의는 aT 유통본부 소속 4개 처·사업소(유통조정처, 공공먹거리처, 농수산물유통교육원, aT화훼센터) 관리자 약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와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하반기 효율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 등 핵심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생산유통통합조직, 스마트 APC(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공공급식플랫폼 등이 언급됐다. 특히 aT는 품목별로 생산과 유통을 결합해 전문 판매조직을 육성하는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전년 대비 21개소 증가한 77개소 선정했다.

또한 산지 스마트화를 위해 산지조직 30개소에 스마트 APC 전환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해, 전년 스마트 APC 누적 60개소를 달성한 데 이어 올해 누적 115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나주=조합원 기자 pose007@gwangnam.co.kr

인사

전남광주특별시 동구

◇4급 승진 △도시공간국장 김연주 ◇5급 승진 △서비스실장 김희선 △지원2동장 임호진 △학동장 김경수 ◇4급 전보 △인문문화국장 이원근 △주민주거국장 김경애 △경제환경국장 임덕심 ◇5급 전보 △일자리경제과장 주영주 △푸른도시과장 김병철 △마을자치과장 안수희 △행정지원과 김민진 △동명동장 노희철 △통합돌봄과 김화정 △양성평등과장 김윤희

전남광주특별시 나주시

◇4급 승진 △복지환경국장 손민식 △농

축산식품국장 김영백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인자 ◇5급 승진 △기획예산실장 직무대리 임영섭 △가족아동과장 직무대리 최민정 △시민공감홍보실장 직무대리 염선지 △에너지신산업과장 직무대리 김병국 △영양강제네상스과장 직무대리 박수연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신성미 ◇5급 전보 △공원녹지과장 박상은 △복지정책과장 윤미행 △사회복지과장 문혜인 △농업정책과장 이재덕 △내원에 유통과장 김양기 △축산과장 한광범 △보건행정과장 신병철 △질병관리과장 이연옥 △공산명장 허영순 △노안명장 박소연 △금천면장 김미숙 △봉황면장 임진광 △송월동장 유지영 △영산동장 손선

양수진·이장근 부부 ‘새농민상’ 수상

지역 농업 발전·조직 활성화 앞장... 청년 창업교육 등 호평

광양농협은 미소담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양수진·이장근 조합원 부부가 농협중앙회 새농민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새농민상은 ‘자립·과학·협동’의 새농민 운동 정신을 실천하며 농업·농촌 발전을 이끌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질을 갖춘 선도농업인에 수여하는 권위있는 상이다.

양수진·이장근 부부는 30대의 젊은 나이에 광양시 봉강면 석사리에서 4500㎡의 시설하우스를 건립하고, 고품질 딸기

를 재배해오면서 농협통합작목반 회원, 청년농부모임 총무로 활동하면서 지역 농업 발전과 조직 활성화에 앞장서 왔다.

또 청년 창업농 교육을 비롯해서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교육, 재배학개론, 채소원예학, 작물보호, 식물생장상자 등 다양한 전문교육을 이수해 영농 역량을 높여왔다. 또한 컴퓨터 등을 활용하여 출하 시기, 출하량 관리, 판로 분석 등 계획영농을 실천,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

특히 이들 부부는 내년 운영을 목표로



미소담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양수진·이장근 조합원 부부가 농협중앙회 새농민상을 수상했다. 사진제공=광양농협

유리온실 수직재배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등 첨단농업을 열어나가고 있다.

허순구 광양농협장은 “새농민상 수상을 축하 드린다”며 “지역 농업의 모범이

되는 농업인으로 활약해주시길 바라고 농업인인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과 교육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

북광주농협, 마을회관 냉·난방기 청소 지원

농협파트너스와 14개 마을 순회 봉사

북광주농협은 최근 농협파트너스와 함께 지역 14개 마을을 순회하며 ‘마을회관 냉·난방기 청소 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마을회관 냉·난방기 청소 지원사업

이번 사업은 무더위와 장마철을 앞두고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구상봉 북광주농협 조합장과 정명화 농협파트너스 대표이사를 비롯해 전문 수리기사 등 임직원 20여명이 참여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14개 마을회관에 설치된 에어컨과 실외기, 냉·난방기 20여 대를 분해 세척하고 내부 청소를 실시하며 냉방

성과와 위생 상태를 점검했다.

마을 주민들은 여름철을 앞두고 냉방기기를 깨끗하게 정비해줘 큰 도움이 됐으며 호응을 보였다.

구상봉 북광주농협 조합장은 “무더운 여름을 앞두고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농협파트너스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농촌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교통공사, ‘사랑의 헌혈’로 나눔 실천

임직원 자발적 참여 혈액 수급 안정화 힘 보태

광주교통공사(사장 문석환)는 2일 광주 서구 마루동 본사에서 대한적십자사광주전남혈액원과 함께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광주교통공사(사장 문석환)는 2일 광주 서구 마루동 본사에서 대한적십자사광주전남혈액원과 함께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혈액 수급이 어려워지는 시기에 생명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본사에서는 공사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며 혈액 수급 안정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또한 헌혈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생명 나눔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을 찾은 문석환 광주교통공사 사장은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희망이 되고 소중한 생

명을 살리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교통공사는 사랑의 헌혈을 비롯해 임직원 자원나눔을 통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공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이어나가고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게시판

알림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랑마루협동조합 취약계층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임관용품·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이동일시보호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임상 상담. 광주

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상담=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속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뜬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시·군·구 자부모집, 한국차매매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ონსე (음력 5월 19일)

48년생 더 이상 욕심부리지 말라
60년생 특별한 정보를 접할 수도 있다
72년생 가족으로 인한 경사가 따른다
84년생 주변에서 도움 사람이 많이 나타난다
96년생 학업문제로 어려움에 처한다

51년생 구슬수를 조심하고 분수를 지켜라
63년생 최악의 상태이니 계속 진행하라
75년생 문서를 작성할 때 문구에 주의하라
87년생 헛되게 애만 쓰고 보람이 없다
99년생 눈높이에 맞게 계획을 세워라

54년생 손꼽아 기다릴 일이 생길 것이다
66년생 금전운은 원활하다
78년생 귀인을 만나 재물을 얻을 수 있다
90년생 길가에서 낚시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57년생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69년생 욕심을 두지 않으면 성취하게 된다
81년생 손재운이 따르니 주의하라
93년생 주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다

49년생 헛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61년생 친구의 감언이설에 속지 말라
73년생 거침없이 밀어붙여야 가다가 잡힐 것
85년생 침착하고 냉정한 자세가 필요한 시기다
97년생 선배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벗어난다

52년생 여러 사람과의 대화 속에 해결책 있다
64년생 약간의 불만이 제기를 가능성이 있다
76년생 간절한 일이라도 크게 기대하지 말라
88년생 악전고투 끝에 승리한다

55년생 차가 벌어지게 돼 있다
67년생 일을 결행하기 전 배우자를 생각하라
79년생 너무 기뻐하지 말고 신중하라
91년생 답답해하지 말고 등산이라도 하라

58년생 경솔한 행동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
70년생 일을 급히 도모하려 하지 마라
82년생 하던 대로 밀고 나가면 편안할 것이다
94년생 뜻하지 않던 보너스를 받을 운이다

50년생 평소 친한 아랫사람이 배신할 수 있다
62년생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수 있다
74년생 오늘은 가능하면 나들이를 삼가라
86년생 절제할 수 있어야 유지될 것이다
98년생 누구나 때가 있는 법이다

53년생 감정 기록이 없으니 자신을 다스려라
65년생 낙관적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었다
77년생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역효과
89년생 이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라

56년생 건강 관리에 유역하라
68년생 대단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80년생 손실이 있으나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92년생 제반사기 걸러내 자신감을 가져라

59년생 반드시 역해에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71년생 가족을 택하는 것이 우선이다
83년생 다른 일을 기획해도 성공하기 어렵다
95년생 떠난 것에 미련을 갖지 마라